

전남

여수 패류양식장 불가사리 피해 심각

서식량 급증... 새고막·피조개 등 30~40% 잡아 먹어

여자만 올해 최대 80억원 피해 예상... 대책 마련 시급

여수 앞바다의 새고막과 피조개 등 패류 양식장에 불가사리 서식량이 늘어나면서 양식패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지역 여자만·가막만 일대 해저 바닥에 조성된 새고막과 피조개 양식장에 불가사리 서식량이 늘어나면서 올해만 양식패류 3천t, 70억~8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 이종 여자만 새고막 양식장은 3천500ha, 가막만 피조개 양식장은 1천500ha 등이다.

이들 패류 양식장은 불가사리 서식량이 늘어나면서 해마다 양식패류의 30~40%를 잡아먹고 있어 매년 피해가 발생, 불가사리 구제(驅除)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예산을 마련해 불가사리 구제에 나서고 있으나 대부분 해녀나 통발, 자망 등을 이용한 소극적인 방법이거나 어촌계에 할당량을 나눠 일부 마을에만 국한된 이뤄져 구제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연안 어선어업(자망, 일반 통발, 문어통발) 조업 중에 잡히는 불가사리는 어민들이 처치가 곤란해 바다에 버리거나 선박 운항에 따른 경비과다지출을 이유로 구제작업을 꺼리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그물망을 개량해 불가사리 구제작업을 실용화하고 불가사리 수매자금의 국비도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불가사리 구제 선박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과 지역 전체 패류양식장이 동시에 구제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는 방안 등도 건의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여자만 바다의 양식장에 불가사리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1차적으로 피해구제는 어민들이 해야 하지만 행정기관에서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hing@



'물의 날' 자전거 투어

K-water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최흥규) 직원 30여 명이 지난 17일 '제 18회 세계 물의 날'을 앞두고 영산강 자전거투어를 벌이고 있다. '우리 강 탐험'을 주제로 한 이번 투어는 광주 광산구 극락교~소수력발전소가 세워지는 나주 승촌보 구간에서 실시됐다. <한국지리원공사 제공>

1500세대 사는 곳 소방도로 없다니...

광산구 도산동 30년간 미개설... 비좁은 길 보행자·차량 엉켜 사고 위험

광산구 도산동 일원에 30여 년간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아파트 및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8일 광산구 도산동 주민들에 따르면 도산동 주민센터 앞에서 호반 청아아파트 방면 연장 140여m의 도로 너비가 2~4m로 비좁아서 차량교행이 어렵고 보행자들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상권이 형성돼 있는 동 주민센터 부근과 광곡서를 가기 위해 소방도로가 미개설된 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언제나 불안에 떨고 있다.

주민들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너비 2~4m의 도로를 너비 8m로 확·포장해야한다"고 말했다.

트와 신도산과 상도산 등 2개 자연마을이 위치한 주민수만도 5천여명(1천500세대)에 이른다.

이곳 주민들은 상권이 형성돼 있는 동 주민센터 부근과 광곡서를 가기 위해 소방도로가 미개설된 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언제나 불안에 떨고 있다.

주민들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너비 2~4m의 도로를 너비 8m로 확·포장해야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너비 2~4m의 도로를 너비 8m로 확·포장해야한다"고 말했다.

고 관계당국에 건의하고 있다. 주민 하모(43·무등아파트)씨는 "이 지역의 낙후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방도로의 개설이 급선무다"면서 "주민들은 20~30년 동안 고통을 안고 살고있다"고 호소했다.

도산동 관계자는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곳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rklee@

강진 '전라병영성' 축제

내달 16~18일 하멜기념관 일원서



영성을 비롯해 하멜기념관, 한골목, 흥교(유형문화재 129호), 적벽청류, 은해사(천연기념물 385호) 등 문화유적지와 천연기념물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h@

'제 13회 전라병영성 축제'가 다음달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강진군 병영면 하멜기념관 일원에서 열린다. (사진)

전라병영성 축제는 조선시대 제주도를 포함한 호남지역 육군을 총지휘했던 전라병영성의 국가사적지(제397호) 지정을 기념하고 옛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1997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축제는 15일 전야제로 풍물패 갈놀이로 시작해서 축제 기념 병사곡 군민노래자랑과 불꽃놀이 행사가 성대하게 펼쳐진다.

행사 당일인 17일에는 300명의 주민들이 참가한 병마절도사 입성식과 군악대의 단독군장 시가행진 이 병영면 읍내를 거쳐 행사장인 하멜 전사관까지 이어진다.

또 군악대 및 풍물패 공연과 성화대학 태권도부 시범 경기의 개막축전 축하연회를 시작으로 뽕놀이, 줄다리기, 굴렁쇠 굴리기, 새끼꼬기, 제기차기 등 다채로운 민속놀이가 펼쳐진다.

한편 강진군 병영면에는 전라병

'경영부실 책임' 장흥 수협장 사퇴

내달 2일 보궐선거

장흥군 수협조합장이 최근 개인적인 채무와 조합경영 부실책임을 지고 제임 7개월여 만에 사퇴함에 따라 후임 조합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다음달 2일 치러진다.

18일 장흥군 수협에 따르면 김모(60) 전 조합장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연체이자와 일반 대출금 등 총 4억여원에 이르는 채

무를 상환하지 못한다. 그동안 경영부실 및 어촌계와의 어업권 마찰 등으로 조합장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최근 사퇴했다.

수협법 및 관공상 '조합장 또는 임원 500만원 이상의 채무를 6개월을 초과해 연체하면 자격상실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김씨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지난 15일자로 조합장을 박달당하게 돼 있었다.

장흥군수협은 그동안 수협중앙회

로부터 경영부실 이유로 인근조합과 합병하라는 권고령을 받은 상태이나 조합원들은 강진수협이나 고흥수협과의 새로 신설조합 방식의 합병조합 체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합장을 사퇴한 김씨는 지난 2005년에 조합장에 당선 후 지난해 8월에 무투표로 2선에 성공했으나 임기(3년 4개월)를 채우지 못한 채 결국 중도사퇴하고 말았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공사장 비산먼지

광양시 특별점검

광양시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飛塵)먼지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광양시는 1개 반 3명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160여 곳의 공사장과 토사운송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토사운송 차량은 세륜·촉진살수와 적재함 덮개설치 적정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중부취재본부=김충수기자 choungh@

전남신보, 저신용 영세업자 '희망금융사업'

연 4% 최대 300만원씩 지원

전남 신용보증재단이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저신용 영세업자에 연 4%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

'지역희망금융사업'을 펼친다. '지역희망금융사업'은 신용등급 6급 이하인 유·무등록 저신용업자를 1인당 300만원씩 최장 3년간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3천개 업체에 혜택이 돌아간다.

행정안전부와 전남도가 각각 4억5천만원씩 9억원을 출연해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대출업무를 대행한다. 전남신보는 출연금의 10배인 90억원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중부취재본부=김충수기자 choungh@

대출 희망자는 신용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구비해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신보 관계자는 "지역희망금융사업은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저신용 영세업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고금리의 사금융시장 유입 차단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김충수기자 choungh@

혁신도시 현장 투어

나주시 공무원 대상

나주시는 지난 17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도시 현장 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혁신도시 현장투어는 '빛가람 혁신도시'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업무공유하고 직원간 소통문화 향상을 위한 것으로 마련됐다.

투어 참가자들은 배산정에서 혁신도시의 개발 현황 및 주요 입주기관의 이전 대상지를 둘러보고, 혁신도시홍보관을 방문해 혁신도시 관련 동영상도 관람했다.

나주시는 다음달까지 5회에 걸쳐 공무원 212명을 대상으로 혁신도시 현장투어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형기자 chung@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효상공인중개사' (Hyo Sang Gong In Chung Gae Sa) with contact info T.062-376-4056 and H.010-3126-1515.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 In Dong Sam Il Bu Dong San) with contact info (FAX)223-1772 and phone 011-602-2532.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태양광발전소부지구함' (Tae Yang Kwang Pal Jeon So Bu Ji Gu Ham) and '광주·전남권 중형마트구함' (Gwang Ju Jeon Nam Kwon Jung Hyung Ma Teo Gu Ham).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매' (Joo Gu Min Beom Bul Kwong Maee)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auction.